

김현진, "작가 이주요의 작업들: 만들기의 태도, 그 수행적 의미들",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 2007

작가 이주요의 작업들: 만들기의 태도, 그 수행적 의미들

최근 서울의 미술계는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는 미술 시장의 영향으로 지극히 물질주의적 완성도와 대중주의적 미술소통에 압도된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정치사회적, 지정학적인 관점들 - 즉 도시와 사회적 풍경, 각종 정치적 입장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미술의 행동주의적이고 실천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양상 - 크게 두 측면으로 양분되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가 이주요의 자리는 그 양측 중 어느 쪽도 아니다. 그녀는 물건들을 만들지만, 전적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완성도를 지니지 않으며, 또한 다른 방식의 정치성을 드러내지만 디테일의 미학적인 면모들 속에서 그 내용을 읽어내야 하는 노력치 않음이 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작업에서 우리가 윤리적 측면들을 읽어낼 수 있지만 작가는 결코 훈시적으로 사회적 관점을 직접 작품에 투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술 언어 고유의 수행적 측면을 통해 자기 정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주요의 작업을 형식과 태도의 상관적 이해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작가적 위치는 현재의 미술 현장 속에서 분명 개별적이며, 쉽게 그 분류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난해할 수 는 있지만 그 존재는 작금의 현장에서 무척이나 반가운 것이 날 수 없다.

거의 10여 년간의 작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주요는 2006 년 가을, 사무소 (디렉터 김선정)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가졌다. 이 개인전에서 작가는 최근 몇 년간의 행적이 담긴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전시는 바로 2004 년부터 2005 년까지 2 년간의 암스텔담 시기에 만들어졌던 작업들과 그 시간 동안 곱씹어 온 작가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모은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전시를 통해 이주요 작업의 면면들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전시는 크게 거실, 주방, 작은 방의 세 파트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선,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아카이브로 이용되는 거실에서 목적이 불명확한 빌보드와 마주서게 된다. 한쪽 책장과 큰 회의 테이블 위에 각목과 합판을 이용해 세워진 이 빌보드에는 갈대밭 같은 느낌이 나는 금색 선들이 보일 듯 말듯 채워진 벽지가 발라져 있고, 이 벽지의 위쪽에 작가는 보일 듯 말듯 선을 추가하거나 드로잉 해 놓고 있다. 빌보드는 정확히 재단된 직사각형도 아니고, 그것은 비교적 싼 공산품 각목과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대충 처리된 목공 질과 수수한 목재, 싼 벽지를 발라 세운 이 구조물은 방을 횡단하면서 갑자기 입장하는 관객의 동선과 시선 모두를 당당히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다시 이

당당한 방해 위에 놓여진 드로잉의 존재감은 보일 듯 말듯하며 ‘헛헛’하기 그지 없다. 다소 뻔뻔하게 서 있으면서도 정체가 불명확한 빌보드의 존재와 허탈하고도 소심한 드로잉의 조합은 이상한 아이러니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의도적으로 방치된 듯 보이기도 하고, 소심한 드로잉의 당당한 자리를 의도적으로 주장하는 듯도 하다. 이 빌보드의 의미심장한 존재와 이곳에서 시작되는 미묘한 여운은 내부로 이어지면서 보다 구체화 된다.

빌보드 뒤쪽으로 이어지는 주방에는 모니터를 통해 싱글채널 비디오 작업 ‘한강에 누워’라는 작업이 상영되고 있다. 이 작업은 보다 구체적인 네러티브 속에서 완성된 것이다. 작가에 의하면, 약 3 년간에 걸쳐 드로잉으로 그리고 다시 영상작업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실제 연애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돈을 벌지 않아 데이트할 돈은 없었지만 그저 앓고 누울 작은 공간이 있으면 충분히 사랑을 나루 수 있었던 반자본주의자 커플은 내내 한강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겨울이 오자 헤어져야 했다. 이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다소 엉뚱한 커플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작가는 자신의 헤어진 연인에게 “Dear my lover”로 시작하는 영상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거닐다가 강바람이 매서워 질 무렵 헤어져 지금껏 다시 함께 찾지 못했던 한강 주변에 직접 앓고 누울 따뜻하고 안락한 간이 공간을 마련한다. 작가는 직접 따뜻하게 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다양한 고안물 둘을 설치하고, 한강 공원 주변의 후미진 곳들을 둘을 위한 안락한 보금자리로 탈바꿈 시킨다. 이 비디오 작업은 내내 이러한 고안된 장치들과 장소들, 한강의 풍경을 기록한 사진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위로 자신의 친구이자 뮤지션인 손경호에게 의뢰하여 만든 노래와 음악이 흐른다. 비디오 속에서 보여지는 보금자리들은 너무나 소박하고 연약하다. 때문에 간단한 재료들로 최소한의 노동과 즉흥적인 발상으로 만들어 놓은 듯 보이지만 이 작업 속에는 나름대로 세심한 공, 그들의 시간 속을 보듬는 마음이 사랑스럽게 담겨있다. 작가는 스산하고 썰렁한 겨울철 공공의 장소를 보일 듯 말듯 하지만 분명 제 기능을 갖춘 안락한 연인의 자리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 한강 공원 곳곳의 사랑스러운 탈바꿈으로 이제 작가는 한강으로 가는 작은 터널에 속으로 직접 쓴 배너를 내건다. “이제 따뜻해졌으니 돌아오라”고. 끝에는 강변의 설치 아이디어들을 그린 드로잉들이 마치 배우들처럼 엔딩 크레딧으로 올라가면서 작가의 유머러스한 한편의 비디오가 완성되고 있다.

이 비디오 작업처럼, 이주요는 특정인들과의 관계맺음 속에 존재했던 과거의 시간을 상기하거나 지시하면서 그 시간을 현재에 재의미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인으로써 일반적인 기능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존재였던 헤어진 연인과의 관계가 등장하고 있으며, 사무소 전시의 마지막 안쪽 방의 작업들 중 일부는 자신의 미술과 인생속에서 중요한 동료였던 작가 박이소에게서 출발하고 있다. 그녀는 박이소의 블랙홀 의자, 복두팔성 등을 오마주하면서 친구로서 작가로서 하나의 특별한 존재였던 박이소의 언어들을 다시 추적하고 재발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유효한 그의 존재의 의미들을 되살리고 그의 부재를 채워나가려 하는 것이다. 작업을 통해 발견되는 작가는 상당히 흥미롭고 독특한 면모를 지닌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자기 주변의 또한 매우 독자적인 예술 세계와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애정 혹은 이해를 작품 속에 등장시킨다. 아마도 이러한 남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유독 몸이 약하고 작아 사회적 스탠다드에서 타자화되곤 하던 자신의 경험으로 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초창기 작가의 작업은 주로 책으로만 만들어졌는데, 이 책들은 특히 크고 건장한 서구사회에서 작고 연약한 동양 여성인 자신이 지닌 신체적 열등함 때문에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들을 메뉴얼화한 것이었다. 그것은 어떤 사회 안에서 절대적인 타자로 전락하게 되는 자신을 경험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보다 약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따뜻하게 건조하지 않게 하는 보조기구들을 만들거나, 계란 박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게임용 방음기구를 제작하고, 자신의 작은 신체에 맞지 않는 기성품들을 리폼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이러한 일상의 어려움들을 보완할 수 있는 오브제를 고안하고 각종 레디메이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장치들을 만들어 내 그것을 책 속에 담아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마사지 방법이 담긴 소담한 그림의 드로잉 북, 'One'과 'Two'는 피곤한 신체를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둘이서 보살피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작가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인간적 관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때로는 타인의 부재를 통해 공허함과 그리움 속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해학과 사랑스러움 속에 담겨지기도 한다. 프랑스 철학자인 작 퓌낭시는 '나'와 '타인'의 실존 자체가 서로에게 부름과 응답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실존들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의미라고 하면서, 여기서 어떤 우리의 존재를 수행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아마도 바로 작가 이주요를 나와 타인 간의 관계 속에서 사고하면서 자신의 존재적 수행을 작업 속에 반영하는 작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을 포함하여 작고 사소하게만 여길 수 없는 존재들, 그들과의 독특한 관계와 그 시간은 작가에게 분명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작가는 타자로서 인간의 모습들을 성찰하고, 그러한 시간 속에 형성된 자신의 인식과 작가적 의식을 작업 속에 함축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특히나 작가가 만들어 내는 갖가지 오브제와 드로잉들의 미학적 양상들 속에 알레고리적으로 압축된다. 예를 들어, 비디오에 등장하는 보금자리를 위한 장치들은 조형적으로 완벽하고 견고하고 균형적이기 보다는 영성하고 즉흥적이고 서로 다른 재료들이나 공산품들이 이질적으로 결합하면서 낯설지만 독특하고 독자적인 존재의 모습을 갖춘다. 이것은 작가의 독특한 만들기의 특성이면서 자신을 둘러싼 일상에 대한 반성에서 얻어진 독특한 형식적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만들기는 작업이 진행되는 순간순간 작품을 만드는 매 순간에 개입되는 반성적 판단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업의 디테일과 그 심미적, 감성적 특성은 이주요 작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전시의 마지막 방은 바로 이러한 작가의 특수한 미적정서들이 담겨 있는 작품들을 집합시킨 방으로, 암스텔담에서 서울로 함께 이주해 온 재료들, 완성된 작품들, 해체된 작업들이 서로 적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방에서 그녀는 각각의 작업들을 온전히 하나씩 디스플레이 하기 보다는 마치 일시적으로 창고에 저장하는 것처럼 개별 작품들과 재료들을 서로 쌓고 겹치고 세우고 쳐놓음으로써 각종 레디메이드 들과 오브제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풍경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작가가 암스텔담에서 서울로 돌아오면서 개인적 여건상 그것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서울로 전부 운송보관을 할 수 없었던 터라 작품들은 버려질 위기에 놓여졌었다. 그러나 사무소에서의 전시로 다시 작업들은 잠시 삶을 연장하거나 회생될 수 있었고, 이 방안에는 이러한 작품의 여정과 운명, 작가의 작업 환경과 삶 속에 놓여진 물리적 한계들, 그 작가적 삶의 현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다. 방의 중앙에는 '미확인 발광물체' 라고 이름 붙여진 작업이 있는데, 잡다한 물건들을 열기설기 쌓고 조명을 넣어 매스를 만든 후 그 조명 빛 을 놓은 이것은 말 그대로 미스터리한 발광물체이다. 이 작업처럼, 그리고 이 마지막 방의 전체에서 우리는 작가가 작업들을 다시 다른 작업의 일부가 되게 하거나 각각의 작업들을 모아 집합을 이뤄서 어떤 총체적 장면을 이루어 내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작가 이주요는 이곳에서 몇 년간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진 개별 작품의 예고를 접고, 보다 집단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관계적으로 조우하게끔 하며 정확한 개별작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작업의 디테일, 혹은 면명들이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잠재적 의미를 그려보게 하고 있는 듯 하다. 때문에 보는 이들 역시 그 오브제의 디테일들 사이로 등장하는 작가만의 감수성과 그 언어의 독특함, 사랑스러움, 고집스러움을 발견하면서 작가의 특이성 (Singularity)을 포착하고 이해해 나가야 한다.

이주요의 작업은 만드는 것에 집착하나, 문제는 어떻게 만드냐는 것이다. 소위 완벽이나 견고, 글래머러스함 등의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방식을 거부하는 만들기를 보여주는 작가는 의도적으로 매번 어떤 판단들을 개입시키면서 주저하고, 회피하고, 돌아가거나 외면하기조차 한다. 현실에 대한 작가적 인식이 직관적으로 형성되고 그것이 매번 오브제의 모습을 잡아가는 순간에 반영되거나 재 개입되는 것이다. 즉, 작가 이주요의 만들기 과정은 날카로운 인식과 윤리적인 판단의 연속된 순간이자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주요는 작가로서의 삶의 한계로 자칫 사라질 뻔 한 작업들의 수명을 잠시 이번 전시에서 연장하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한자리에 모아 자신의 독특한 작가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작업을 판매하거나

큰 저장고가 있고 한 곳에 정착해 있다면 어려움이 덜하겠지만, 갈수록 그 어느 쪽에도 쉽게 편승하지 않는 그녀와 같은 작가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러나 오히려 작가 이주요는 이러한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자기 삶의 부분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직면하면서 자기 인식의 날을 더하고 작업의 언어로 전화시키고 있다.

작가의 언어들은 사라짐과 존재함,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빛나며, 그녀의 반성적 언어들, 그 인간적 면모들과 유머는 더없이 특별하다. 작고 연약한 수작업들 속에 등장하는 그녀의 오브제, 그 내부에서 발하는 특유의 감수성과 태도는 분명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무엇이며, 작가 이주요는 그 수행적 만들기를 통해 우리 미술의 한 켠을 의미심장하게 차지하고 있다.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242.6343 / 212.242.6484
Seoul 270 Yonji-Dong, Jongno-Gu, SEOUL KOREA TEL 82.2.708.5050
www.doosangallery.com

